

제1교시

국어 영역(A형)



[1~3] 다음은 '우리 문화 연구 동아리' 부원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함께했던 체험 학습과 수학여행 때 제주도의 민속 마을이나 하회마을을 돌아볼 때를 떠올려 보세요. 거기서 마을로 들어가면 돌담이나 흙담, 또는 울타리라고도 하는 싸리담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저는 이런 돌담, 흙담, 싸리담 같은 우리 서민들의 집을 둘러싼 전통 담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돌담 사진을 화면으로 보여 주면서) 주로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가 마을에서 볼 수 있는 돌담은 쌓아놓은 돌들 사이에 불규칙한 공간이 있어 오히려 바람에 잘 견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흙담 사진을 화면으로 보여 주면서) 농촌 마을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이와 같은 흙담은 흙에 지푸라기나 석회 등을 섞어서 쌓은 것으로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누추하지도 않은 담입니다. (움막집과 그 집의 싸리담 사진을 화면으로 보여 주면서) 이것은 싸리담인데요, 우리 농촌에서는 이렇게 다 쓰러져 가는 움막집에도 반드시 담을 두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담이든 흙담이든 싸리담이든, 아무리 보아도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거나 재산이나 인명을 보호하는 담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침입을 막기에는 너무 허술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허술한 담을 굳이 쌓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전통적인 담의 역할이 안과 밖을 나누는 상징적 공간 구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신분이 낮아도 다른 이들이 넘볼 수 없는 그 식구들만의 성을 쌓고 담의 안쪽을 정신적인 자기 영토로 여기며 살아가려는 의식을 반영한 것이지요. 문화평론가인 ○○○ 박사는 아무리 허술한 돌담이나 흙담 그리고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싸리담 같은 것이라도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는 영주의 성벽과도 같은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담이 자기 영토를 표시하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근형이나 안부를 묻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담이 소통이나 나눔의 장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담을 일컫는 '울타리'라는 말이 일인칭 복수인 '우리'라는 말과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각 집의 울타리가 이어지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우리'라는 인식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지요. 서로 구별되는 것이면서도 조화를 이룬다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힘이 서민들의 전통 담에도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1. 학생의 발표 계획 중 위 발표에서 실현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며 발표할 내용을 제시해야겠어.
 - ②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전해야겠어.
 - ③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위해 발표의 중간중간에 질문도 해 봐야겠어.
 - ④ 대상의 의미 해석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야겠어.
 - ⑤ 마지막 부분에서 한자 성어를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의미를 인상적으로 전해야겠어.

2. 다음은 학생이 위 발표를 들으며 메모한 내용이다. ㉠~㉣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듣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민들 집의 전통 담의 역할>

- 서민들 집의 전통 담
 - 돌담, 흙담, 싸리담(울타리) 등
 - ↳ 흙에 지푸라기나 석회를 섞은 이유는 뭘까? ㉠
 - 침입을 경계하거나 재산이나 인명을 보호하는 역할은 하지 못함. (너무 허술하게 생긴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고 함.) ㉡
- 서민들 집 전통 담의 역할 ㉢
 - 안과 밖을 나누는 상징적 공간 구분의 역할을 함.
 - 소통과 나눔의 장이 되기도 함.
- 전통 담이 지니는 의미
 - '울타리'는 '우리'와 같은 어원에서 유래 ㉣
 - 내가 사는 아파트의 담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

- ① ㉠으로 보아, 발표 내용과 관련된 궁금한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으로 보아, 발표자가 대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도 고려하여 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으로 보아, 발표 내용에서 대상의 역할을 파악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로 보아, 발표 내용 중 일부가 주제와 관련이 없음을 인식하고 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으로 보아, 발표 내용을 자신의 주거 환경과 관련지으며 확장적으로 사고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3. 다음은 위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이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청중 1: 우리나라의 전통 담 형태만 설명했는데, 이를 다른 나라의 담 형태와 비교하면서 전개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 청중 2: '우리 문화 연구'라는 동아리 활동 취지와 발표 내용이 잘 맞는 것 같아. 고리타분한 동아리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호감이 가는 동아리였어.
- 청중 3: 말의 뿌리가 같다는 것으로부터 해석해 낸 의미를 언급했는데, 그 과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
- 청중 4: 무심히 보았던 우리 전통 담에서 그와 같은 의미를 생각해 낼 줄 몰랐는데, 발표를 듣고 나니 주변의 것들이 다시 새롭게 인식되는 것 같아.
- 청중 5: 돌담이 바람에 잘 견디는 이유가 돌과 돌 사이의 구멍 때문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 구멍이 바람의 저항을 적게 해주는 것이잖아. 이 내용을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 설명해 주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 ① 청중 1은 발표 내용과 구성 방식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군.
- ② 청중 2는 동아리 활동의 취지와 발표 내용의 조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동아리에 대한 인식 변화를 경험하고 있군.
- ③ 청중 3은 대상의 의미를 이끌어 내는 과정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 ④ 청중 4는 대상의 종류를 다양하게 소개하며 발표를 전개한 것이 자신의 행동 변화를 유도한 원인이라고 여기고 있군.
- ⑤ 청중 5는 발표 내용에 대해 흥미를 보이면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한 뒷받침 설명이 없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군.

[4~5] 다음은 방송 대담의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 독립 영화를 통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장식 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신문 환경 전문 기자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답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공장식 축산은 무엇이며, 어떤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나요?

대답자: 공장식 축산은 비좁은 시설에 대량의 가축을 모아 사육하는 방식으로, 이 시설에서 동물들은 공산품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를 예로 들면, 몸을 돌릴 수도 없는 감금 틀에 암태지를 가두어 놓은 상태에서 일평생 쉬지 않고 임신을 하고 새끼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의 이러한 방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지요.

진행자: 저도 그간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는데요. 이 동물이 어떻게 길러졌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네요. 다른 동물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대답자: 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닭은 한 마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A4 용지 한 면에도 미치지 못하는 철창 우리에서 서로 쪼지 못하도록 부리가 잘린 채로 매일 달걀을 낳으면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말 안타깝네요. 업체 측에서 이런 방법으로 가축을 기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답자: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함이지요. 고기를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답변입니다. 실제로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9kg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1970년대의 8배에 달하는 많은 양이지요.

진행자: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안타깝고, 참 고민스럽네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대답자: 유럽 연합과 캐나다에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감금 틀이나 철창 우리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동물 보호 단체가 이런 시설을 금지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육식을 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은 개인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동물을 감금하고 기계처럼 생식이 이루어지게 하는 시스템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공장식 축산의 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대답자: 이와 같은 시설 문제와 함께 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공장식 축산 방식은 축산 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경우 신종 플루나 조류 독감과 같은, 인간에게 유해한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돼지에서 기원한 신종 플루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오늘 새로운 사실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진행자의 발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추가 질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새로운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③ 화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상대방의 발언을 재진술하여 자신이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⑤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발언에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5. <보기>를 참고로 하여 생각해 볼 때, 대답자의 입장을 대변한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설득을 위한 화법에서 현재 상황의 변화를 제시하는 주장을 할 때는 문제 상황을 나타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① 공장식 축산은 한곳에서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 방식으로 인해 위생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인간에게 유해한 전염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 ②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불쌍한 동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동물을 사랑하는 인간으로서 이러한 학대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③ 공장식 축산은 한정된 공간 안에 대량의 가축을 모아 사육하는 시설로서, 최대한 시간에 최적의 무게와 양질의 고기를 얻기 위한 인공적인 기술을 거침없이 실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④ 공장식 축산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우선되어야 한다. 많은 관심을 통해 여론이 형성된다면 공장식 축산에 대한 반대가 하나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 ⑤ 공장식 축산은 방법 면에서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건강에도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감금 틀과 같은 비인도적 사육 환경을 제재하고 위생적 환경을 구축할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과학 기술과 관련된 시사 문제를 찾아 모둠별로 협동 작문하기
- 모둠원이 정한 중심 소재: 유전자 변형 식품
- 글의 주제: 유전자 변형 식품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과 이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

협동 작문 과제의 초고

최근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란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종(種)이나 속(屬)이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한 생물에 집어넣어 작동하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모두 살펴보고, 유전자 변형 식품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작물의 수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병충해로 인한 피해 역시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재배한 작물의 경우 인체에 해가 없고, 병충해에 강할 뿐만 아니라 상품성이 높은 작물의 재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류가 처한 식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이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식품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종(種)의 경계를 초월하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기술이므로 유전자 변형 식품은 안전하다는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과학자는 유전자 변형 콩을 먹인 쥐의 새끼는 사망률이 6배가 높았고, 태어난 새끼도 저체중 상태를 보였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은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전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A]

모둠원의 조언

- 조언 1: 글의 중심 소재, 주제, 문단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특히 [A] ㉠
- 조언 2: 마지막 문단은 앞서 언급한 내용 중 유전자 변형 식품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을 요약한 후 이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제시하되, 정책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했으면 좋겠어. ㉡

6. <보기>는 ‘협동 작문 과제’의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수집한 자료에 대해 모둠원들이 나눈 대화이다. ㉠~㉡ 중, ‘협동 작문 과제’의 초고에 활용되지 않은 것은?

<보기>

모둠원 1: 수집한 글쓰기 자료를 점검해 보자. 내가 조사한 보고서에서는 ㉠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 이 기술을 이용한 작물 재배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

모둠원 2: 내가 조사한 자료에서는 ㉢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어. 그리고 ㉣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 사람들이 우려하는 점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었어.

모둠원 3: 나는 한 연구 기관이 발표한 논문을 통해 ㉤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조치와 법규를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의 조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미흡하다는 비판적 견해도 볼 수 있었어.

- ① ㉠ ② ㉡ ③ ㉢ ④ ㉣ ⑤ ㉤

7.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둘째 문단의 ‘인체에 해가 없고’를 ‘기후적 조건의 영향을 덜 받으며’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 ② 둘째 문단의 ‘인류가 처한 식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인류가 처한 환경 오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 ③ 셋째 문단의 ‘유전자 변형 콩을 먹인 쥐’를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조작한 쥐’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 ④ 셋째 문단의 ‘유전자 변형 식품은 안전하다는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를 ‘유전자 변형 식품은 식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 ⑤ 셋째 문단의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이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를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실용성이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8. ㉡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그러므로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정부는 이의 생산이나 유통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 ② 그러므로 정부는 식량 생산량의 증대를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국민 개개인도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 ③ 한편으로는 식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량을 경계의 논리로 바라보지 말고 식량 부족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 ④ 정부나 유관 기관들은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개개인들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 ⑤ 더구나 유전자 변형 식품의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와 국가의 정치적 다툼으로 논의가 변질되기도 한다. 이에 우리는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주의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겠다.

[9~10] 다음은 학교 신문에 '생활 속의 상식'란에 쓸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요즘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콘택트렌즈를 처음 생각해 낸 사람은 화가이면서 조각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합니다. 그는 물이 든 짧은 튜브를 눈에 대어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을 ㉠ 제공했다고 합니다. 물이 든 튜브가 빛을 굴절시킨다는 것인데, 이 원리는 오늘날의 콘택트렌즈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후 몇 세기 동안 유리를 이용하여 렌즈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니다. 그러다가 1877년 최초의 실용적인 렌즈가 ㉡ 개발하였습니니다. 그 후 플라스틱 렌즈가 나왔고, 1940년대에 이르러 눈의 중심 부분만 덮는 현대적인 콘택트렌즈가 만들어졌습니다.

콘택트렌즈는 재질에 따라 하드렌즈와 소프트렌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드렌즈는 딱딱한 재질이라서 눈에 넣었을 때 이물감이 있지만, 크기가 작고 산소 투과가 잘 됩니다. 반면에 소프트렌즈는 부드러운 재질이어서 이물감이 적고, 착용하기는 편리하지만 산소가 잘 통하지 않아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콘택트렌즈는 무거운 안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미용에도 도움이 되며, 시력을 정확하게 교정해 주는 반면, 장기간 착용하면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 그러나 각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건조해진 렌즈가 달라붙어 각막 세포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렌즈 착용 때문에 생기는 각종 질환을 막으려면 정기적으로 눈 검사를 받는 외에 렌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눈에 충혈이 생기거나 이물감이 들면 안경을 끼는 것이 좋습니다. ㉤ 집에 귀가하면 손을 씻은 후, 눈에서 렌즈를 빼내어 철저히 소독과 세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렌즈를 끼고 잠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 손톱을 짧게 깎아서 렌즈나 각막이 긁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윗글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콘택트렌즈의 재료를 설명한 뒤 제작 방법을 서술한다.
 - ② 콘택트렌즈의 종류에 따른 특징을 대조의 방법으로 서술한다.
 - ③ 콘택트렌즈를 사용할 때 알아야 할 주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④ 콘택트렌즈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여 객관적인 입장을 드러낸다.
 - ⑤ 콘택트렌즈의 발명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을 제시하여 흥미를 유발한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단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안했다'고 고친다.
 - ② ㉡: 주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습니다.'로 수정한다.
 - ③ ㉢: 접속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런데'로 바꾼다.
 - ④ ㉣: 문단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서 문단을 나눈다.
 - ⑤ ㉤: 의미가 중복되었으므로 '집에'를 삭제한다.

11. <보기>의 설명을 참고로 할 때, '구개음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구개음화란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ㅟ' 앞에서 경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음 예를 통해 구개음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까요?

㉠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경우	㉡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벼훤이[벼훤치], 밭이[바치]	빌딩[빌딩], 홀이불[혼니불]

- ① ㉠을 볼 때, 구개음화는 표기가 아닌 발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임을 알 수 있어.
- ② ㉠을 볼 때, 구개음화는 뒤에 오는 음운의 영향으로 앞에 오는 음운이 변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어.
- ③ ㉡을 볼 때, 구개음화는 외래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현상임을 알 수 있어.
- ④ ㉠과 ㉡을 비교해 볼 때, 구개음화는 한 단어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현상임을 알 수 있어.
- ⑤ ㉠과 ㉡을 비교해 볼 때, 구개음화는 뒤에 오는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일 때 발생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어.

1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의 위치를 표현하는 문법 범주를 시제라고 한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표현하는 절대 시제가 주로 사용된다. 절대 시제에서는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 있을 때를 과거,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때를 현재,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뒤에 있을 때를 미래라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예문에 나타난 시제를 이해해 보도록 하자.

선생님: 청소를 ㉠ 하고 있구나. 그런데 왜 너희들만 청소를 하고 있니?

유정: 선수가 체육 시간에 ㉡ 넘어졌는데 많이 아파했어요. 그래서 먼저 ㉢ 보냈어요.

선생님: 그랬구나. 두 사람이 교실 청소를 다 하느라 많이 힘들었겠네.

소영: 처음에는 좀 ㉣ 힘들었는데, 청소가 거의 끝나가니까 지금은 기분이 ㉤ 좋은데요.

유정: 내일도 저희 둘이 ㉥ 청소할게요.

선생님: 두 사람이 ㉦ 고생했으니 이따가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이라도 ㉧ 사 줘야겠는데.

- ① ㉠은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함을 보여 준다.
- ② ㉡과 ㉢은 모두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은 ㉤과 달리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은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뒤에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과 ㉧은 두 사건시가 서로 일치함을 보여 준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국어의 보조사 '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인사를 예쁘게도 하는구나.
 ㄴ. 성격이 아직까지도 그대로니?
 ㄷ. 밥만 먹지 말고 반찬도 먹어라.
 ㄹ. 정말 어려우시면 내일까지도 좋습니다.

- ① ㄱ, ㄴ을 보니 '도'는 부사어와 결합하기도 한다.
- ② ㄱ, ㄹ을 보니 '도'는 어머니 다른 보조사에 결합하기도 한다.
- ③ ㄴ을 보니 '도'는 앞말의 뜻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 ④ ㄷ을 보니 '도'는 조건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 ⑤ ㄹ을 보니 '도'는 '허용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14. <보기 1>의 문장을 수정하는 데에 고려된 것만 <보기 2>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

<보기 1>

초대한 친구들이 다 오지 않았지만, 우선 내가 너에게 친구 한 명을 소개시켜 줄게.
 → (수정 후) 초대한 친구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지만, 우선 내가 너에게 친구 한 명을 소개해 줄게.

<보기 2>

㉠ 불필요한 사동 표현을 수정했다.
 ㉡ 중의적 의미가 해소될 수 있도록 수정했다.
 ㉢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드러나도록 수정했다.
 ㉣ 문장 성분 간에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수정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5. <보기>의 담화 상황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동아리실에서)
 길동: 우치야, 선생님 좀 모시고 와. 축제 준비 상황을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
 (교무실에서)
 우치: ㉠저, 안녕하세요? 선생님, 길동 선배가 오시래요.
 선생님: 그래, 그러자. ㉡그런데 하던 일이 있어 지금은 ㉢못 가. 일이 끝나는 대로 곧 갈 테니, 너 먼저 가 있어.
 (동아리실에서)
 길동: ㉣선생님은?
 우치: 하던 일이 ㉤있어서서 끝내는 대로 곧 오신대요.

- ① ㉠: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자신을 낮춤으로써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나타낸다.
- ② ㉡: 접속어를 사용하여 앞으로 말할 내용이 접속어 사용 전에 말한 내용과 다른 내용임을 나타낸다.
- ③ ㉢: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하여 불가피한 일로 갈 수 없음을 나타낸다.
- ④ ㉣: 길동과 우치가 발화 맥락을 공유하고 있어 서술부의 내용을 생략하고 주어부만 제시한 의문 표현을 사용하여 질문을 한다.
- ⑤ ㉤: 선생님은 우치와 길동이 높여야 할 대상이므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인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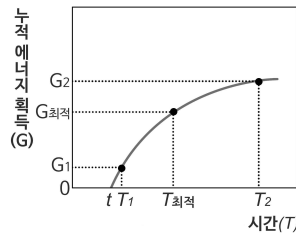
한 생물이 다른 생물을 소비하는 것을 '포식'이라 한다. 포식은 생명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지만 모든 시간을 포식 활동에 쓸 수는 없다. 따라서 포식자는 효율적으로 포식 활동을 해야 하는데, 생태학자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최적 먹이 획득설'을 내세웠다. 최적 먹이 획득설은 어떤 먹이를 먹는지, 어디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탐색할 것인지 등 먹이 획득 과정에 관한 여러 가지 결정들을 비용과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즉 포식자는 최대한 짧은 시간 동안에 최대의 에너지를 획득하는 방향으로 포식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먹이 획득에 소비한 총 시간(T)은 피식자를 찾는 '탐색'과 피식자를 죽이고, 먹고, 소화시키는 '취급'의 두 활동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탐색에 걸리는 시간을 탐색 시간(T_s)이라 하고 취급에 걸리는 시간을 취급 시간(T_h)이라 한다. 단 두 종류의 피식자 P_1 과 P_2 가 있는 서식지가 있고, 포식자가 피식자를 탐색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자. 두 피식자가 E_1, E_2 단위의 순 에너지 획득을 가져오고, 취급에 각각 T_{h1}, T_{h2} 가 걸린다면 이때 두 피식자의 수익성은 각각 E_1/T_{h1} 와 E_2/T_{h2} 로 정의된다. 이때 E_1/T_{h1} 이 E_2/T_{h2} 보다 크다면 최적 먹이 획득설에 따라 P_1 이 P_2 보다 선호되는 피식자가 된다.

[A] 그런데 포식자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체적 피식자를 선택하는 경우는 없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먹이 획득에 관련된 또 다른 시간 요소인 탐색 시간(T_s)을 고려해야 한다. 탐색 시간은 피식자의 밀도와 반비례한다. 수익성이 높은 피식자 P_1 을 찾는 동안 포식자가 수익성이 낮은 피식자 P_2 를 우연히 만나 포식할 경우 피식자 P_2 의 수익성은 E_2/T_{h2} 이고, P_1 개체를 계속 탐색, 포획, 섭취하는 선택의 수익성은 $E_1/(T_{h1}+T_{s1})$ 이다. 이 둘을 비교하여 E_2/T_{h2} 이 $E_1/(T_{h1}+T_{s1})$ 보다 크다면 P_2 를 포식해야 하고, 반대라면 P_1 개체를 계속 찾아야 한다. 따라서 최적의 선택은 P_1 의 탐색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서식지에 따라 피식자의 밀도나, 피식자로부터 얻는 에너지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포식자는 어떠한 서식지에서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최적 먹이 획득설에 따르면 수익성이 높은 서식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포식자가 언제 현재의 서식지를 버리고 다른 서식지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㉞ 한계치 정리라는 접근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오른쪽 그림에서 x축은 시간, y축은 서식지 내 먹이 획득 활동에 의한 누적 에너지 획득(G)을 나타낸다. 포식자가 서식지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초기 시간은 t_0 로 가정한다. 먹이 획득이 시작된 직후에는 피식자들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에너지 획득으로 정의되는 에너지 획득률이 높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피식자들의 밀도가 ㉞ 떨어지고, 이에 따라 에너지 획득률이 감소하여 누적 에너지 획득이 점점 수평에 접근한다. 어느 시점에서의 이익률은 누적 에너지 획득(G)을 x축의 T값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된다. 이익률이 최대인 시점($T_{최적}$) 이전에는 이익률이 증가하나, 이후에는 이익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한계치 정리에 따르면 포식자는 이익률이 최대인 시점($T_{최적}$)에 서식지를 떠난다.



16. 밑줄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식자의 밀도가 높을수록 피식자를 탐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적어진다.
- ② 포식자들은 단위 시간당 에너지 획득을 최대화하는 포식 활동을 하려 한다.
- ③ '한계치 정리'는 이익률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포식자가 서식지를 떠난다고 보았다.
- ④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피식자들을 취급하는 시간은 수익성이 높은 피식자일수록 오래 걸린다.
- ⑤ '최적 먹이 획득설'에 따르면 포식자는 수익성이 낮은 서식지보다 높은 서식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17.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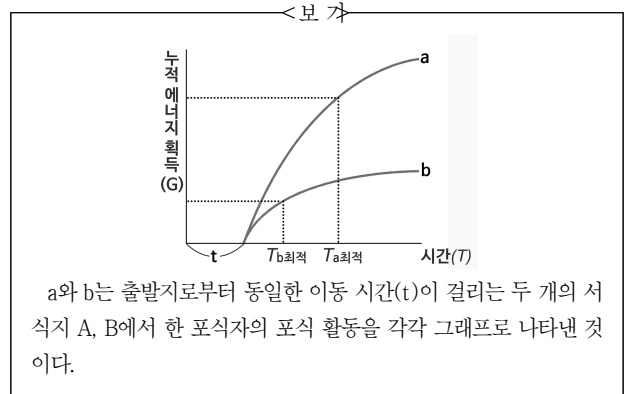
<보기>

어느 바닷가에 갈매기의 포식 활동을 조사하였다니 피식자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피식자	개체당 획득 에너지	탐색 시간	취급 시간
성게	15	15	10
조개	30	27	3
홍합	8	20	4

- ① 피식자들의 밀도는 성게가 가장 높고, 조개가 가장 낮은 것이다.
- ② 탐색 시간이 동일하다면 갈매기는 피식자 중에 조개를 섭취하는 것이 효율적 선택이 될 것이다.
- ③ 갈매기가 조개를 찾으러 나갈 때 홍합을 만난다면 홍합을 섭취하는 것이 효율적 선택이 될 것이다.
- ④ 갈매기가 성게나 홍합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면 최적 먹이 획득설에 따라 홍합이 성게보다 선호될 것이다.
- ⑤ 갈매기가 조개를 찾는 데 걸리는 탐색 시간이 20초로 줄어든다면 갈매기는 성게를 만나더라도 성게를 무시하고 계속 조개를 찾는 것이 효율적 선택이 될 것이다.

18. ㉞와 관련하여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포식자는 B보다 A에서 더 오래 머무르게 되겠군.
- ② B와 달리 A에서는 이익률이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겠군.
- ③ A와 달리 B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 획득률이 감소하겠군.
- ④ 출발지로부터의 이동 시간(t)이 줄어들수록 이익률은 A보다 B가 더 크겠군.
- ⑤ A와 B에 동일한 종류의 피식자가 서식한다면 A보다 B에 서식하는 피식자의 숫자가 많겠군.

19. ㉞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큰 고생을 하였다.
- ② 혈압이 7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③ 지하철역은 우리 집에서 300미터쯤 떨어져 있다.
- ④ 아이는 잠시도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 ⑤ 배가 고프다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밥상이 나왔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극은 무대 위에서 상연되는 예술인데, 무대 위의 공간도 3차원으로 배치되고, 또 배우들이 직접 등장하여 연기를 펼친다는 점에서 3차원의 예술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영화는 3차원의 현실을 평면인 스크린 위로 투사하여 보여 주기 때문에 2차원의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연극과 영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연극과 영화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개념이 바로 ‘몽타주’와 ‘미장센’이다.

몽타주는 편집을 의미하는 용어로 영화에서 많이 사용한다. 에디팅(editing)이 쇼트와 쇼트를 자르고 붙이는 기술적인 개념의 편집을 의미한다면, 몽타주는 쇼트와 쇼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제3의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몽타주 이론의 틀을 제시한 러시아의 에이젠시테인은 영화는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하는 것, 다시 말해서 원래 따로따로 촬영한 필름의 조각들을 창조적으로 결합해서 현실과는 다른 영화적 시간과 영화적 공간을 구성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 리듬과 심리적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데서 영화의 예술성이 성립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감독은 각각의 장면들을 촬영할 때 이미 편집을 염두에 두고 인물의 배치, 촬영의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주의 영화를 지향하는 비평가들은 몽타주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게 아니라 조작하고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감독이 몽타주를 통해 특정한 의도를 부각시키면 관객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서 관객 스스로가 작품을 해석할 여지는 거의 남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연극에서는 3차원의 무대 공간에서 관객이 자신의 시선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관객 스스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게 하는데, 이와 같은 연극의 특성을 영화에서 보여 주는 것이 미장센이다.

㉠ 미장센은 원래 ‘무대 장치, 무대에 올린다.’란 뜻의 프랑스어로 연극에서 쓰이는 용어였으나 영화로 옮겨 오면서 주어진 공간 내에서 배경, 인물, 조명, 의상, 분장, 카메라의 움직임, 화면의 크기 등의 요소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미장센은 단일한 쇼트로 화면 속에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작업으로, 미장센에 충실한 감독은 화면을 정적인 회화 작품처럼 구성하면서 다의적인 표현을 통해 관객에게 스스로 관찰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미장센을 효과적으로 살리는 대표적인 촬영 기법으로는 롱테이크와 딥포커스가 있다. 롱테이크는 한 장면을 끊지 않고 길게 찍는 기법이다. 영화에서 롱테이크 기법이 많이 쓰이면 관객들에게 지루한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이미지를 꾸미지 않고 가감 없이 보여 주어 사실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딥포커스는 카메라에 비교적 가까이 있는 물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에 이르기까지 모두 초점이 맞도록 촬영하는 기법으로 전경과 후경이 모두 선명하게 찍히기 때문에 우리 눈이 현실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매우 비슷한 느낌을 준다. 또한 화면에 등장하는 모든 물체에 동등한 가치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롱테이크와 딥포커스 등을 활용한 미장센은 영화에 연극적인 사실성과 호흡을 불어넣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몽타주 기법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② 몽타주와 미장센이 영화 산업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 ③ 몽타주와 미장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각각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④ 몽타주와 미장센의 문제점을 제시한 후 이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영화에서 미장센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체적 예를 동원하여 설명하고 있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영화는 3차원의 현실을 2차원으로 재현하는 예술이다.
- ② 몽타주는 편집 단계뿐만 아니라 촬영 단계에서 고려되기도 한다.
- ③ 연극과 달리 영화는 편집을 통해 감독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가능하다.
- ④ 딥포커스 기법을 활용한 장면의 경우 우리 눈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
- ⑤ 몽타주 기법이 활용된 장면의 경우 관객들은 개별적인 쇼트의 결합에 담긴 의미를 독자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22.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ㄱ. 마이크 리 감독의 영화 ‘비밀과 거짓말’에서 마지막 장면은 집에서 가족들이 싸우고 화해하는 모습으로 제시된다. 가족끼리 대화하는 장면만 20분 넘게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되는데, 식탁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 앉아 있는 가족들이 모두 카메라의 초점에 맞도록 촬영하여 모든 가족들이 선명하게 화면에 나타난다.
- ㄴ. 에이젠시테인 감독의 영화 ‘파업’을 보면 정장 차림의 뚱뚱한 중년 남자가 식탁에서 오렌지를 두 손으로 쥐어짜는 장면이 클로즈업으로 제시된 후, 그다음 장면에서는 노동자들이 일그러진 표정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장면이 나온다.

- ① ㄱ에서 20분 넘게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되는 것은 미장센의 ‘롱테이크’ 기법을 쓴 것이라 할 수 있어.
- ② ㄱ에서 20분 넘게 하나의 장면으로 가족 간의 싸움과 화해를 보여 주기 때문에 연극적인 사실성을 부여할 수 있겠어.
- ③ ㄱ에서 모든 가족들이 선명하게 제시되는 것은 가족들 모두가 카메라의 초점에 맞기 때문인데, 이를 통해 관객은 모든 가족들의 말과 행동을 주시하는 것이 가능하겠어.
- ④ ㄴ에서 감독은 관객들이 중년 남자와 그의 손에 들린 오렌지의 관계를 다의적으로 해석하여, 스스로 관찰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겠어.
- ⑤ ㄴ에서 중년 남자가 오렌지를 쥐어짜는 모습과 노동자들의 일그러진 표정은 관련이 없는 개별적인 쇼트이지만, 감독은 이를 이어 붙여서 중년 남자와 공장 노동자들이 관련이 있음을 드러내려 했겠어.

2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화에서의 ㉠은 수용자가 작품을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 ② 영화에서 ㉠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야 한다.
- ③ 영화 제작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은 영화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 ④ 연극에서의 ㉠은 관객이 연극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 ⑤ 영화감독은 ㉠을 통해 관객에게 자신이 의도한 특정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컴퓨터와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요즘은 누구나 집에서도 위성 사진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위성 사진은 인공위성에서 얻은 데이터를 이미지로 처리한 것이다. 그럼 인공위성은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얻는 것일까? 인공위성에서 위성 사진용 데이터를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듯이 ㉠ 인공위성에 장착된 광학 카메라를 통해 촬영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합성 개구 레이더를 통해 영상을 얻는 방법이다.

위성의 광학 카메라를 이용한 방식은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의 촬영과 동일하다. 일반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빛을 모아 주는 렌즈와 빛을 조절하는 조리개, 그리고 영상을 얻는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일반 카메라는 초점 거리가 18~20mm 정도인 데 비하여 위성의 광학 카메라는 고해상도를 얻기 위해서 초점 거리가 보통 1m 이상인 카메라를 사용하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렌즈 대신 거울을 사용하는 점이 다르다. 위성의 광학 카메라 방식은 우리 눈에 익숙한 화면이 촬영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촬영 지역에 구름이 끼거나 촬영 지역이 어두운 밤일 때에는 원하는 사진을 얻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 위성의 광학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일반적으로 정오 가까운 오전에 위성이 지나가면서 촬영한다.

이에 반해 전자파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미세한 시간 차를 측정하여 그 데이터를 합성해 사진을 만드는 합성 개구 레이더 방식은 주간 및 야간, 그리고 악천후에도 촬영이 가능하여 일 년 중 반이 어둠으로 덮여 있는 북극과 남극, 그리고 일조 시간이 극히 짧은 고위도 지역을 관측하는 데에 유용하다.

합성 개구 레이더 방식으로 영상을 얻고자 할 때, 레이더를 장착한 인공위성이 이동하면서 전자파를 발사한다. 그러면 발사된 전자파는 목표물에 맞고 반사되어 돌아온다. 이때 레이더의 안테나는 반사되어 온 전자파를 수신하고, 이 수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상을 만들게 된다. 이 경우 레이더에서 사용하는 전자파는 선명한 영상을 얻기에 유리하도록 파장이 짧은 마이크로파를 이용한다. 파장이 긴 저주파를 사용하면 먼 곳까지 탐지할 수는 있지만 정밀한 측정이 어려워 해상도가 나빠지고, 주파수가 큰 전자파를 이용하면 분산이나 굴절이 최소화되어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전자파의 주파수가 커지면 파장은 짧아지기 때문에 레이더는 파장이 짧은 전자파를 사용할수록 좋은 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레이더는 안테나의 직경이 발사한 전자파의 파장에 비해 크면 클수록 전자파의 회절*이 적어서 더 높은 해상도의 영상 자료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인공위성의 안테나는 일정 크기 이상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그런데 인공위성은 궤도를 따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전자파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동안 인공위성이 이동한 거리만큼 마치 레이더 안테나의 직경이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결국 레이더의 안테나가 이동하는 것을 이용하여 개구면이 작은 안테나로 수신된 연속적인 여러 개의 레이더 신호들을 합성하여 개구면이 큰 안테나로 수신한 것처럼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 초점 거리: 렌즈나 거울의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
* 회절: 파동의 전파가 장애물로 가로막혔을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물의 뒤로까지 전파되는 현상

24. 밑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광학 카메라를 이용한 위성 사진
- 위성 사진의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 ② 위성 사진의 촬영 조건
- 날씨에 따른 영향을 줄이는 방식을 중심으로
- ③ 위성 사진의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방법
- 일반 카메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④ 위성 사진의 정밀도 향상 기술
- 위성에서 사용하는 전자파의 종류를 중심으로
- ⑤ 위성 사진용 데이터를 얻는 방법
- 광학 카메라 방식과 합성 개구 레이더 방식을 중심으로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름이 끼어도 원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다.
- ② 초점 거리가 길어지면 해상도가 좋아진다.
- ③ 우리 눈에 익숙한 화면을 얻을 수 있다.
- ④ 거울을 사용하여 무게를 줄일 수 있다.
- ⑤ 빛이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촬영한다.

26. 밑글을 읽고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다음 그림은 합성 개구 레이더 방식으로 촬영하는 위성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다. 위성은 ㉠에서 ㉡으로 이동하면서 ㉢을 촬영하고 있다.

- ① ㉠에서 발사된 전자파는 파장의 길이가 짧을수록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겠군.
- ② ㉠에서 주파수가 큰 전자파를 사용하면 굴절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겠군.
- ③ ㉠에서 ㉡으로 이동한 길이가 길어지면 위성 영상의 해상도가 낮아지겠군.
- ④ ㉠에서 ㉡으로 이동하는 동안 수신된 레이더 신호를 합성하는 기술이 필요하겠군.
- ⑤ ㉢에 맞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전자파의 시간 차를 정확하게 측정해야겠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다. 기업이 한 고객을 잃는다는 것은 한 번의 매출 손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한 고객이 기업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에 걸쳐 발생시킬 누적 구매, 즉 ‘고객 생애 가치’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훌륭한 ‘고객 관계 관리’는 우량 고객의 지속적 유지를 통해 고객 생애 가치를 얻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고객 점유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여기서 고객 점유율이란 해당 제품 범주에 대한 고객의 구매액 중에서 자사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기업은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할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기업은 수익성 있는 고객을 창출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평생 동안 유지함으로써 고객 생애 가치를 얻고 더 높은 구매 점유율을 차지하고자 한다. 고객 관계 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높은 ‘고객 자산’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고객 자산은 현 고객과 잠재 고객 각각의 고객 생애 가치를 합한 것을 말한다. 수익성 높은 고객이 기업에 대해 더 높은 충성도를 보일수록 그 기업의 고객 자산은 증가한다. 고객 자산은 현재의 매출 혹은 시장 점유율보다 더 나은 기업 성과 지표일 수 있다. 매출과 시장 점유율은 과거의 기업 성과를 반영하는 반면, 고객 자산은 미래의 성과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고객에 대해 신중하게 관리하고 투자해야 한다. 그들은 고객을 관리되어야 할, 그리고 그 가치를 극대화해야 할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고객 모두가, 때로는 충성 고객 모두가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은 수익 잠재력에 따라 고객을 분류하고 이에 맞추어 고객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데, 각 고객의 수익성과 충성 유지 기간에 기반하여 고객 관계 집단을 ‘방문객 집단’, ‘나비 집단’, ‘진정한 친구 집단’, ‘따개비 집단’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방문객 집단은 낮은 수익성과 짧은 충성 기간을 가진 고객을 말하는데, 기업의 제품물과 고객의 욕구 간에 적합성이 별로 없다. 이러한 특성의 고객들을 관리하는 전략은 단순하다. 그것은 이들에게 전혀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나비 집단은 수익성은 높지만 충성 유지 기간이 짧은 고객을 말한다. 이 고객 집단은 기업의 제품물과 고객 욕구 간에 높은 적합성을 갖지만, 나비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자사의 제품물을 즐기다가 다른 기업으로 옮긴다. 나비 집단을 충성 고객으로 전환하는 노력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은 그들과 짧은 기간 동안 좋은 거래를 하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기업은 단발적인 판촉을 통해 서로에게 유익한 거래가 성사되고 나면,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그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

진정한 친구 집단은 수익성이 높고 충성 기간이 긴 고객이다. 고객의 욕구와 기업 제품물 간에 높은 적합성을 갖는다. 기업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들을 유지하고 육성하기 위해 관계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 기업은 진정한 친구 집단을 ‘진정한 신뢰자 집단’으로 전환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기적으로 재구매하고, 그 기업과의 긍정적 경험을 타인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따개비 집단은 충성 기간은 길지만 수익성이 별로 없는 고객들을 말한다. 고객 욕구와 기업 제품물 간에 제한된 적합성을 갖는다. 소액 구매의 은행 고객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정기적으로 은행과 거래를 하지만 그 고객의 구매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수익을 내지는 못한다. 따개비 집단은 가장 골치 아픈 고객일 수 있다. ㉠기업은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을 낮추는 등의 노력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수익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그들과의 거래를 포기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고객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고객 관계 전략이 요구된다. 결국 각 고객 관계 전략의 목표는 기업의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객을 유형별로 적합한 방법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27.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고객 자산은 고객이 보유한 재산의 정도를 의미한다.
- ② 고객의 수익성보다 중요한 것은 충성 유지 기간이다.
- ③ 고객 점유율은 기업이 고객에게 투자하는 비용의 비율이다.
- ④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거래를 중시해야 한다.
- ⑤ 고객을 관리할 때는 수익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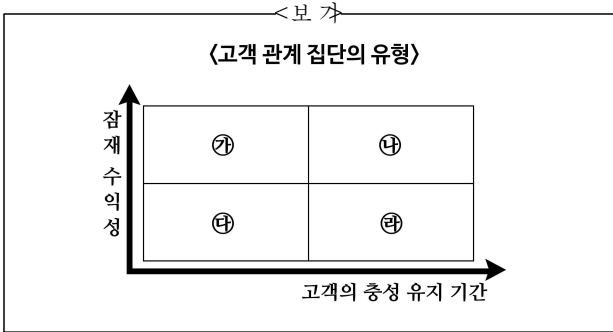
2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70~1980년대에 걸쳐 A사의 자동차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가장 높은 충성 고객들을 확보하였다. 당시 최고급 승용차 시장에서 A사의 자동차 점유율은 51%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매출 실적이 높았던 A사는 호황을 구가했다. 그런데 A사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주요 고객들의 평균 연령대는 60세였는데, 이들은 당시 보유한 차가 마지막 승용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사의 브랜드를 젊고 활기찬 이미지로 고객들에게 인식시키려 노력한 B사의 자동차는 초기의 시장 점유율 전쟁에서는 A사의 자동차에 비해 유리하지 않았으나, 평균 연령 40대의 고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B사의 시장 점유율과 이익은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A사의 경영 실적은 점차 악화되었다.

- ① 1970~1980년대에 A사의 높은 매출은 미래보다는 과거의 기업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1970~1980년대에는 최고급 승용차 시장에서 A사의 자동차가 B사의 자동차보다 고객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군.
- ③ 1990년대 이후 A사의 경영 실적이 악화된 것은 A사가 기존 고객에 대한 고객 관계 관리를 실패한 결과로 볼 수 있겠군.
- ④ 1990년대 이후 B사의 이익이 증가한 것은 1970~1980년대에 높은 고객 생애 가치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겠군.
- ⑤ 1990년대 이후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 양상이 달라진 것은 B사가 A사보다 고객 자산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29.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할 때, <보기>의 ㉠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업은 이 집단의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낮춰 수익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 ② 이 집단에 속하는 고객들은, 기업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쉽게 거래 기업을 바꾼다.
- ③ 기업이 투자 전략을 짤 때, 이 집단에 속한 고객들은 다른 집단의 고객들에 비해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
- ④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 이 집단에 속하는 고객들은 다른 집단의 고객들에 비해 큰 기여를 한다.
- ⑤ 기업은 다른 집단의 고객들보다 이 집단에 속한 고객들의 관계를 유지하고 구축하는 데 지속적인 투자를 하려 한다.

30. ㉠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케팅의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케팅은 수익성 있는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과정이다.
- ② 마케팅은 단기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홍보를 하는 것이다.
- ③ 마케팅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과정이다.
- ④ 마케팅은 고객 만족을 토대로 고객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 ⑤ 마케팅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욕구를 배제한 경영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은자는 내 추억의 가운데에 서 있는 표지판이었다. 은자를 기둥으로 하여 이십오 년 전의 한 해를 소설로 묶은 뒤로는 더욱 그러하였다. 기록한 것만을 추억하겠다고 작정한 바도 없지만 나의 기억은 언제나 소설 속 공간에서만 맴을 돌았다. 일 년에 한 번, 아버지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고 전주에 갈 때마다 표지판이 아니면 언뜻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려져 있는 고향의 모습이 내게는 낯설기만 하였다. 이제는 사방팔방으로 도로가 확장되어 여관이나 상가 사이에 홀로 박혀 있는 친정집도 예전의 모습을 거의 다 잃고 있었다. 옛집을 부수고 새로이 양옥으로 개축한 친정집 역시 여관을 지으려는 사람이 진작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이었다. 집 앞을 흐르던 하천이 복개되면서 동네는 급격히 시가지로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나마 철길이 뜯기면서는 완벽하게 옛 모습이 스러져 버렸다. 작은 음악회를 열곤 하던 버드나무도 베어진 지 오래였고 찜뽕 가게

가 있던 자리로는 차들이 썩썩 달려가곤 했다. 아무래도 주택가 자리는 아니었다. 예전에는 비록 정다운 이웃으로 둘러싸인 채 오손도손 살아왔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었다. 은성장 여관, 미립 여관, 거부장 호텔 등이 이웃이 될 수는 없었다. 게다가 한창 크는 아이들이 있었다. 우리 형제들은 물론, 조카들까지 제 아버지에게 이사를 하자고 졸랐었다. 하지만 큰오빠는 좀체 집을 팔 생각을 굳히지 못하였다. 집을 팔라는 성화가 거세면 거셀수록 그는 오히려 집수리에 돈을 들이곤 하였다. 그 동네에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큰오빠였다.

일 년에 한 번씩 타인의 낯선 얼굴을 확인하러 고향 동네에 가는 일은 쓸쓸함뿐이었다. 이제는 그 쓸쓸함조차도 내 것으로 남지 않게 될 것이었다.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었다. 고향은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이니까. 누구는 동구 밖의 느티나무로, 갯마을의 짠 냄새로, 동네를 끼고 흐르는 긴 강으로 고향을 확인하며 산다고 했다. 내게 남은 마지막 표지판은 은자인 셈이었다. 보이는 것들은, 큰오빠까지도 다 변하였지만 상상 속의 은자는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다. 은자만 떠올리면 옛 기억들이, 내게 남은 고향의 모든 소스리가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오곤 하였다. 허물어지지 않은 큰오빠의 모습이 그 속에 온전히 남아 있었다. 내가 새부친 클럽에 가서 은자를 만나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표지판에 기대어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알 수 없었다.

은자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나는 전혀 떠올릴 수가 없다. 설령 클럽으로 찾아간다 하여도 그 애를 알아볼 수 있을지 자신할 수도 없었다. 내 기억 속의 은자는 상고머리에, 때 긴 목덜미를 물들인 짝의 역센 손자국, 그리고 터진 거드랑이 사이로 내보이던 낮은 내복의 계집아 이로 불박여 있었다. 서론도 훨씬 넓은 중년 여인의 그 애를 어떻게 그려 낼 수 있는가. 수십 년간 가슴에 품어 온 고향의 얼굴을 현실 속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다,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만나 버린 뒤에는 내게 위안을 주었던 유년의 소설도, 소설 속의 한 시대도 스러지고야 말리라는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현실로 나타난 은자를 외면할 수 있을지 그것만큼은 풀 수 없는 숙제로 남겨 둔 채 토요일 밤을 나는 원미동 내 집에서 보내고 말았다.

(중략)

집을 팔았다고는 하지만 훨씬 좋은 집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큰오빠에게 있으므로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큰오빠는 어제 종일 토록 홀로 술을 마셨다고 했다. 나도, 그리고 동생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번 추도 예배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되겠어. 내가 오빠들한테도 모두 전화할 거야. 그렇지 않아도 큰오빠 요새 너무 약해졌어. 여관 숲이 되지만 앓았어도 그 집 안 팔았을 텐데. 독한 소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오늘 아침엔 일어나지도 못했대. 좋은 술 다 놓아두고 왜 하필 소주야? 정말 모르겠어. 전화나 한번 해 봐. 그리고 추도식 때 꼭 내려와야 해. 너무들 무심하게 사는 것 같아. 일 년 가야 한 번이나 만날까. 큰오빠도 그제 섭섭한 모양이야.....”

그 집에서 동생들을 거두었고 또한 자식들을 길러 냈던 큰오빠였다. 그의 생애 중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거기에 스며 있었다. 큰오빠는, 신화를 창조하며 여섯 동생을 가르쳤던 큰오빠는 이미 한 시대의 의미를 잃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십오 년 전에는 젊고 잘생긴 청년이었던 그가 벌써 권 살의 나이로 늙어 가고 있었다. 이십오 년을 지내 오면서 우리 형제 중 한 사람은 땅 위에서 사라졌다. 목숨을 버린 일로 큰오빠를 배신했던 셋째 말고는 모두들 큰오빠의 신화를 가꾸며 살고 있었다. 여태도 큰형을 어려워하는 둘째 오빠는 큰오빠의 사업을 돕는 오른팔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화해에 일가견을 이루고 있었다. 내과 전문의로 개업하고 있는 넷째 오빠도,

행정 고시에 합격하여 고급 공무원이 된 공부벌레 다섯째 오빠도 큰 오빠의 신화를 저버리지 않았다. 고향의 어머니와 큰오빠가 보기에 는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지어낼 뿐인, 책만 끼고 살더니 가끔 글줄 이나 짓는가 보다는 나 또한 궤도 이탈자는 결코 아닌 셈이다. 아버 지가 세상을 떠던 해에 고작 한 살이었던 내 여동생은 벌써 두 아이 의 엄마가 되어 음악 선생으로 일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정작 큰오빠 스스로가 자신이 그려 놓은 신화에 발이 묶이 고 말았다. 공장에서 돈을 찍어 내서라도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던 시 절에는 우리들이 그의 목표였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실패 할 수 없도록 이를 악물게 했던 힘은 그가 거느린 대가족의 생계였었 다. 하지만 지금은 동생들이 모두 자립을 하였다. 돈도 벌 만큼 벌었 다. 한때 그가 그렇게 했듯이 동생들 또한 젊고 탱탱한 활력으로 사 회 속에서 뛰어가고 있었다. 저들이 두 발로 달릴 수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인가,라고는 묻고 싶지 않지만 노쇠해 가는 삶의 깊은 구멍 은 큰오빠를 무너지게 하였다. 몇 년 전의 대수술로 겨우 목숨을 건 진 이후부터는 눈에 띄게 큰오빠의 삶이 흔들거렸었다. 이것도 해신 안 되고 저것도 위협하며 이러저러한 일은 금하여야,는 생명의 금칙 이 큰오빠를 옥죄었다. 열심히 뛰어 도달해 보니 기다리는 것은 허 망함뿐이더라는 그의 잦은 한탄을 전해 들을 때마다 나는 큰오빠가 잃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수없이 유 년의 기록을 들추면서 위안을 받듯이 그 또한 끊임없이 과거의 페이지 를 넘기며 현실을 잊고 싶어 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이 시대에서 멀어지는 연습을 하는지도.

- 양귀자, 「한계령」 -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면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인물 간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 ③ 인물들을 매개로 과거 기억과 현재의 삶이 교차되고 있다.
- ④ 사건에 대응하는 인물의 행위를 회화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대하는 인물에 따라 심리가 변해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32. <보기>를 참조할 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가>

이 작품에서는 힘겨웠던 시절에 가족의 성공이라는 신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들의 삶과 그 삶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것이 성취감이 아니라 허망감임을 깨닫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현재의 삶 에 위안을 얻고 있기에 그들에게는 그 기억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 ① '나'는 젊은 시절 자신을 희생했던 '큰오빠'가 현재 겪는 허망감에 연민을 느끼고 있다.
- ② '나'는 현재의 삶에 위안을 주는 과거의 기억이 훼손될까 봐 지금의 '은자'와 만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 ③ 기억 속의 '은자'는 '나'로 하여금 현재의 삶에 위안을 주는 과거를 보다 잘 기억하게 해 주는 존재이다.
- ④ '큰오빠'는 자신이 희생했던 과거가 '동생들'에 의해 잊혀져 현재의 삶에 위안을 받지 못하고 있다.
- ⑤ 살아 있는 '동생들'은 '큰오빠'의 희생적인 삶으로 일구어 낸 가족의 성공이라는 신화를 저버리지 않았다.

33. 윗글에서 <보기>의 ㉠과 가장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보 가>

이태준의 「돌다리」는 병원 확장을 위해 고향의 농토를 파는 문제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의 제목이 기도 한 '돌다리'는 아버지 자신이 글을 배우러 다니던 다리이자 어머니가 시집을 올 때 가마 타고 건너온 다리, 그리고 조상의 상돌을 옮긴 다리이기도 해서 아버지한테는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데, 그러한 의미는 아들 '창섭'이 고향에 도착했을 때 ㉠ 아버지가 돌다리를 보수하고 있다거나 새벽에 보수한 다리로 나가 세수를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암시된다.

- ① 대수술 이후 '큰오빠'는 그전과는 다르게 크게 흔들리는 삶을 살아감.
- ② 가족들의 성화에도 '큰오빠'는 고향집 팔기를 꺼리고 오히려 집수리에 돈을 들임.
- ③ 옛집을 팔고 난 후에 '큰오빠'는 훨씬 좋은 집으로 옮길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
- ④ 집을 팔고 난 후 '큰오빠'는 혼자 종일 독한 소주를 마시고 다음 날 일어나지도 못함.
- ⑤ 어린 시절 형편이 어려웠을 때 '큰오빠'는 조금도 허물어지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음.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주무시는 창 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 잎이 나거든 나인 줄 여기소서

- 홍량 -

(나) 임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 지났구나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는 말이고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무슨 일이고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어찌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리(千里)를 바라보라
차라리 물가에 가 뱃길이나 보려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수선히 된지고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는고
강천(江天)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임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지고
모참(茅簷) 찬 자리에 밤이 돌아오니
반벽(半壁) 푸른 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고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오락가락하니
어느덧 힘이 다해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옥 같던 얼굴이 반이 넘게 늙었어라
 마음에 먹은 말썽 실컷 사피자 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 말썽인들 어이 하며
 정을 못다 풀고 목조차 매여 오니
 방정맞은 닭 울음에 잠을 어찌 깨었던고
 어와 허사로다 이 입이 어디 간고
 바로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가없는 그림자 날 좇을 뿐이로다
 차라리 사라져 낙월(落月)이나 되어서
 임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치리라
 각시님 달은 말고 굶은비나 되소서.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3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반영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감정 이입의 방식으로 화자의 애상감을 심화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계절감을 주는 어휘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표출하고 있다.

35. <보기>를 참고로 (가)와 (나)에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별 시가의 전통을 잇고 있는 작품에서 화자가 느끼는 고통의 원인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 상태에 있다. 이를 극복하지 않은 채 현실에서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작품들이 전신(轉身)* 모티프를 활용하는데, 전신의 대상은 입과의 공간적 격리를 극복하여 보다 입과 밀착할 수 있는 존재로 설정되기 마련이다. (가)에서 화자가 뒷버들을 꺾어 입에게 보내는 것이나 (나)에서 입과 헤어진 화자(을녀)가 달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 이를 듣는 상대방(갑녀)이 굶은비가 되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전신: 다른 대상으로 바뀜.

- ① (가)에서 화자가 ‘뒷버들’을 입에게 보내는 것은 ‘뒷버들’을 자신의 분신으로 인식하여 입과의 공간적 격리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로군.
- ② (가)에서 ‘밤비’는 입과의 공간적 격리를 극복하여 사랑을 성취하고자 하는 화자를 가로막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을녀’가 입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낙월’을 전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입과의 공간적 격리를 극복하기 위해서이군.
- ④ (나)에서 ‘갑녀’가 ‘을녀’의 전신의 대상으로 ‘달’을 부정한 것은 ‘달’이 하늘 높이 떠 있기 때문에 단지 입을 바라볼 뿐 입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였기 때문이겠군.
- ⑤ (나)에서 ‘갑녀’가 ‘눈물’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 ‘굶은비’가 되라고 한 것은 입과의 공간적 격리로 인해 ‘을녀’가 느낀 슬픔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미로 볼 수 있겠군.

36. <보기>와 관련하여 (나)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나)에서 화자의 공간 이동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입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a에서의 화자의 처지와 d에서의 화자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는다.
- ② b는 멀리서 오는 임 혹은 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볼 수 있게 하는 공간이다.
- ③ b와 c에서는 화자가 입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이 수치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④ b에서 소망이 일차적으로 좌절된 화자는 c로 이동하여 또다시 소망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 ⑤ d의 ‘모첩(茅簷) 찬 자리’는 입 없이 살아가는 화자의 심적 상태를 잘 드러내는 공간으로 제시되어 있다.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방(孔方)의 사람됨은 밝은 등글고 안은 모나며 임기응변(臨機應變)에 능해, 한대(漢代)에는 벼슬을 하여 홍로경(鴻臚卿)이 되었다. 그때 오왕(吳王) 비(濞)가 교만하고 분수에 넘친 짓을 하며 권세를 제멋대로 부렸는데, 방이 그와 더불어 많은 이익을 보았다. 무제(武帝) 때 천하의 경계가 궁핍하여 나라의 창고가 텅 비었으므로 임금이 걱정하여 방을 부민후(富民侯)로 삼았다. 그의 무리인 엄철승(嚴鐵丞)* 근(僅)이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근은 늘 그를 형이라 부르며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

방의 성품은 욕심 많고 더러워 염치가 없었는데, 이제 재물과 씩씩이를 도맡게 되니 본전과 이자의 경중을 달아보는 것을 좋아하여, 나라를 편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질그릇이나 쇠그릇을 만드는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백성과 함께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다루고 물건 값을 낮추어 곡식을 천하게 하고 재화를 중시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근본인 농업을 버리고 상업을 좇게 하여 농사에 해를 끼치므로, ① 간관(諫官)들이 많이 상소하여 논하였으나 상이 들지 않았다. 방은 또 재치있게도 권세와 부귀를 잘 섬겨 그 문에 드나들며 권세를 부리고 벼슬을 팔아 올리고 내침이 자기의 손바닥 위에 있으므로 많은 공경들이 절개를 굽혀 가며 섬기니,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두어 서류와 증서가 산같이 쌓여 다 셀 수가 없었다. 그는 사람을 만나고 인물을 대하면서도 어질고 불초함을 묻지 않고 비록 시정잡배라 하더라도 재물만 많이 가졌다면 다 함께 사귀면서 통하니, 이른바 시정의 사귀이란 것이다. 때로는 혹 거리의 불량 소년들과 어울려 바둑 두기와 투전하기를 일삼아 그때그때 허락해 주기를 잘 하므로,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방의 말 한마디면 무제가 황금 백 근과 같다.”

라고 하였다.

원제(元帝)가 즉위하자 공우(貢禹)가 상소하기를,

“공방이 오랫동안 일을 맡아보면서 농사의 근본됨을 알지 못하고 한자 장사치의 이득만 일으켜 나라를 쪼먹고 백성을 해쳐 공사(公私)가 다 공군(公困)하며, 더구나 뇌물이 낭자하고 청탁이 버젓이 행해지니, 대개 ‘깊어진 자가 수레를 탄다면 도적을 만날 것이다(負且乘致寇至)’라고 한 것은 위대한 『주역(周易)』의 분명한 경계이니, 청컨대 그를 면직시켜 욕심 많고 더러운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때의 집정자가 곡량(穀梁)의 학문으로 진출한 이가 있어, 군수를 담당하는 장수로 계책을 세우려 하다 방의 행사를 미워하여 그의 상소를 도우니, 이에 상이 그 상소를 수용하여 방은 마침내 쫓겨나고 말았다. 공방이 그의 문인에게,

“내가 전에 임금을 뵈고 혼자 천하의 정치를 돌보면서 나라의 경제가 족하게 하고 백성의 재물을 너덕히 하고자 했더니, 이제 하찮은 죄로 쫓겨나게 되었으나 나아가 등용되거나 버림을 받거나 내에게는 더 이상 손해날 것이 없다. 다행히 나의 남은 목숨이 실오라기처럼 끊어지지 않고, 주머니가 그 속에 감추어 말없이 내 몸을 용납하였다. 부평초 같은 자취로 곤장 강회(江淮)의 별장에 돌아가, 약야계(若冶溪)에 낚시를 드리워 고기를 낚고 술을 사서, 민상(閔商)과 해고(海賈)*와 함께 술을 실은 배를 띄우고 한평생 마시면 그만이다. 비록 수많은 복록과 다섯 솔의 밥인들 내가 어찌 그것을 부러워하며 이러한 즐거움과 바꾸겠는가? 그렇지만 나의 술법은 먼 훗날에 부흥하리라.”

라고 하였다.

(중략)

방의 아들 윤(輪)은 경박하여 세상의 욕을 먹었고, 뒤에 수형령(水衡令)이 되었으나 장물죄가 드러나 사형을 받았다고 한다.

사신 왈(史臣曰),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좇는 자를 어찌 충신이라고 하겠는가? 방이 법을 만나고 주인을 만나 정신을 모으고 마음을 다잡아 정녕 한 약속을 잡아 그다지 적지 않은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이익을 일으키고 해를 털어 그 은혜를 갚을 것이어늘, 비(漚)를 도와 권세를 제멋대로 부리고 사사로운 무리를 만들었으니, ‘충신은 분수에 어긋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거스른 것이다. 방이 죽자 그의 무리가 다시 남송에 쓰여 집정에게 아부하여 도리어 올바른 사람을 모함하였으니, 원제가 공우의 말을 들어 하루아침에 다 죽여 버렸더라면 후환이 없었을 것인데, 제재나 억압만 더하여 후세에 폐단을 끼치게 하였으니, 대저 일보다 말이 앞서서 자는 늘 미덥지 못함이 근심이다.”

- 임춘, 「공방전」 -

* 염철승: 소금, 철 등을 관리하는 관직

* 끊어진 자가 수레를 탄다면 도적을 만날 것이다(負且乘 致寇至): 공자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등에 짐을 지는 것은 소인의 일이요, 말을 탄다는 것은 군자의 기구이다. 소인이 군자의 기구를 타면 도적은 이것을 약탈하려 한다.’

* 민상과 해고: 둘 다 상업에 의인화한 것임.

3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염철승 근’은 공방과 함께 일하며 친하게 지냈다.
- ② 공방은 여러 대의 임금에 걸쳐 벼슬을 하며 재물을 축적했다.
- ③ 무제는 나라의 경제를 걱정하여 방에게 벼슬을 내려 신하로 삼았다.
- ④ 사신은 공우가 올바른 사람을 모함하여 후세에 폐단을 끼치게 한 점을 안타까워했다.
- ⑤ 공방의 아들 윤은 공방과 마찬가지로 그릇된 태도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 부터 비판을 받았다.

38. <보기>는 위 작품을 둘러싼 두 전문가의 대화이다. 이를 참고하여 위 작품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 교수: 작가는 무신란을 만나 가문 전체가 화를 입고 겨우 피신하여 목숨은 보전하였으나, 빈궁한 처지에서 불우하게 일생을 살았지요. 돈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곤궁했던 작가의 삶과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전(假傳)이라는 양식은 작가가 사관의 말을 통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특징을 지니는데, 공방전 역시 작가가 작품 말미에서 사신(史臣)의 말을 빌려 돈의 폐단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당대 사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B 교수: 그렇군요. 저는 이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 상황에 대해 주목해 봤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상업이 발달하고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돈으로 벼슬을 사고파는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당시의 근본으로 여겨졌던 농업이 소홀하게 되면서 사회의 질서가 흔들렸던 당시 중국의 사회적 상황이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앞으로 돈으로 인한 폐단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이를 경계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 ① 공방의 생김새나 성품 등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돈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을 알 수 있다.
- ② 공방이 뇌물을 거두고 벼슬을 파는 점에서 돈으로 인해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진 사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공방이 벼슬에서 쫓겨났다는 점에서 무신란으로 인해 빈궁한 삶을 살았던 작가가 공방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사신의 목소리를 통해 작가의 견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가전(假傳)의 양식이 작가의 가치관을 직접 전달하는 데 유용한 문학 갈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백성들이 곡식을 천하게 여기고 농업을 버리게 한 공방의 태도에서 상업과 화폐의 발달이 농경 사회를 흔들리게 할 수 있음을 예견한 작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39.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원제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그를 설득하려 하고 있다.
- ② 널리 알려진 경전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공방에 대한 처벌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경계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원제가 취해야 할 조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주장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⑤ 공방이 야기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원제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40. ㉠을 나타내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장난명(孤掌難鳴) ② 교각살우(矯角殺牛)
- ③ 망양보뢰(亡羊補牢) ④ 마이동풍(馬耳東風)
- ⑤ 주마간산(走馬看山)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
 이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
 이거니.....

- 신석경, 「들길에 서서」 -

(나) 가난이야 한낱 남루(襤褸)에 지나지 않는다.
 ㉢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맷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더라.

㉣ 청산(靑山)이 그 무릎 아래 지란(芝蘭)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목숨이 가다가다 농올쳐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내외들이여 그대들도
 더러는 앉고

㉤ 더러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지어미는 지어미를 물끄러미 우리러보고
 지어미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어느 가시덤불 쭉구렁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玉)돌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यो,
 청태(靑苔)라도 자육이 끼일 일인 것이다.

- 서정주, 「무등을 보며」 -

4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적 배경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② 물음의 방식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관념적인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부정적인 외적 상황에 당면했을 때 그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현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현실에 좌절, 절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인 현실에 맞서 그것을 헤쳐 나가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대응 방식은 당면한 현실이 어떠한지 진단한 후, 이를 바탕
 으로 긍정적으로 현실을 수용하거나 희망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태
 도로 나타난다.

- ① (가)의 '푸른 하늘'과 (나)의 '우리 새끼'는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② (가)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와 (나)의 '옥
 (玉)돌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यो'에서는 현실을 긍정적으
 로 수용하는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③ (가)의 '슬퍼도 좋다'와 (나)의 '남루(襤褸)에 지나지 않는다'는 화자
 가 현실에 좌절했을 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의 '저문 들길'과 (나)의 '오후의 때'는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현
 실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의 '바라보자'와 (나)의 '짚어라'는 부정적 현실을 헤쳐 나가기 위
 한 화자의 대응 방식을 암시하고 있다.

4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부사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의 지속성을 드러
 내고 있다.
- ② ㉡: 말줄임표를 활용하여 여운을 주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③ ㉢: 가난의 비극적인 모습을 묘사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두 자연물의 관계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로 드러내고 있다.
- ⑤ ㉤: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궁핍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삶의 태
 도를 권유하고 있다.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최씨의 아들 영수는 3·1운동에 참여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에
 수배되어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된다.

최씨: (독백) 오늘이나 밤에 조용히 다니러 올려는지? 온대도 붙잡힐
 까 무서워서 겁이 난다마는 올려거든 오늘 와서 제가 좋아하는
 송편이라도 좀 먹지를 앓고.

서씨: (건넌방에서 나와 최씨 앞에 앉아서 콩을 간다.)

최씨: 어린놈은 자느냐? / 서씨: 네.

최씨: 그것이 애비가 보고 싶어서 욕장 아빠— 아빠 부르는걸!

서씨:

최씨: 남들도 붙잡혀 가야 다직해서 한 삼사 년 치루면 그만일 테니
 그럴 셈하고 자현*을 시키라고 권면들은 하지만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한평생 그렇게 피신만 해 다니랄 수도 없고.
 서씨: 가서 한 삼 년이고 치루고 나오는 게 낫지. 그 짓을 유루 어떻
 게 해요. 그리잖아도 요전에 왔을 때 그런 말눈치를 보였더니
 필쩍 뛰면서 아직도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왜 자현을 하라느냐
 고 그러디마는.

순사: (차면 안으로 환도를 덜그럭거리며 서슴잖고 쭉 들어선다.) 안녕하
 십니까?

최씨: (자지러지게 놀라고)

서씨: (내외를 하느라고 방으로 들어간다.)
 최씨: (겨우) 네, 어서 오시오.
 순사: (토방 앞으로 가까이 와서 휘회 둘러보면서) 거 송편 속입니다그려?
 최씨: 네. 어린것도 있고 해서 추석이라고.
 (중략)
 순사: 네 좋습니다. 가게 보든 걸 넘기셨는지요?
 최씨: 네. / 순사: 왜요?
 최씨: 그건 두어서 무얼 하겠어요?
 순사: 그렇기도 하지만 얼마에 넘기셨습니까?
 최씨: 물건 남은 것하고 집하고 터전까지 껴서 육천 냥 받았어요.
 순사: 육천 냥이면 일천이백 원? 거 잘 받으셨는데요!
 최씨: 그런 말씀 마시우. 그래 보여도 그게 눈을 오십 마지기나 잡혀서 채려놓은 가게라우.
 순사: 첨에 들인 밀천이 많다고 그 값이 다 나가나요? 그래 그 돈은 자체한테로 보내셨나요?
 최씨: 아—니요. (황망히) 어데 가서 있는지 알아서 보내요?
 순사: 허허허허. 자—그럼 갑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최씨: (청대롱 가지를 손에 든 채 일어서서) 네, 평안히 가시고 또 오시요. 또 와도 걱정이오마는.
 순사: 허허허허. 그렇지만 오기만 하는 거야 어떻습니까? 허허, 안녕히 계십시오. (돌아서서 나간다.)
 최씨: 안녕히 가시우.
 서씨: (방에서 나와 앉는다.) 가게 팔린 소식은 어데서 듣고 와서.
 최씨: 그 사람네가 그 소식 모르겠니?
 서씨: 그래도 가서 일러바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지요? 좀 있으면 집집마다 살강에 술강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알고 다닐걸.
 최씨: 시방은 세상이 그렇게 밝단다. (사이) 인제는 어두워서 안 보인다. 불을 좀 켜지.
 서씨: (건넌방으로 들어가서 석유 램프에 불을 켜 가지고 나와 적당한 곳에 걸어놓는다.) 눈 잡힌 것은 아니 몰러 주겠대요?
 최씨: 그게 누구라고 몰러 주겠니? 그 사람이 꼭 제 것을 만들 욕심으로 애초에 잡았던 것인데. 그나마 기한이 하루 이틀 지낸 것도 아니고 벌써 석 달이나 지낸걸. (사이) 진작 알았더라면 내라도 나서서 다른 눈을 제 값을 받고 팔아다가 그것을 물렸을 것을.
 영수: (지쳐둔 부엌문을 열고 어엿이 나온다.)
 최씨·서씨: (놀라 먼저 대문간계를 본다.)
 최씨: 이애야 방금 다녀갔대!
 영수: 알았어요. 뒤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서 부엌으로 들어오니깐 이 얘기하고 있는 게 벌써 그렇드구만요. (웃는다.)
 최씨: 방으로 들어가자.
 영수: 괜찮어요. 방금 다녀간 길 어데 되짚어 오나요. (시계를 꺼내 본다.) 아뿔싸! 한 시간밖에 아니 남았군. 어머니, 가게는 제가 기별한 대로 그 사람한테 넘기고 돈 찾으셨지요?
 최씨: 오냐. / 영수: 저 주세요.
 최씨: (안방으로 들어간다.)
 영수: 상인이는 자우? / 서씨: 네. 어데 가시우?
 영수: 응, 이리고 있어야 수족을 묶인 것 같아서 일도 못 하고, 그래 몇몇이서 오늘 저녁에 상해로 떠나기로 되어서.
 서씨: (울상을 한다.)
 최씨: (돈을 손에 쥐고 나온다.) 어데 가느냐?
 영수: 네. (돈을 받아 세다가 일부분을 도루 최씨한테 주면서) 이게 이백 원이니 이것을 두고 가용에 쓰세요. 그리고 눈이 그래도 그렇게 저령 일백 한 오십 마지기는 남았으니까 추수하면 집안 지내기는 넉넉할 겁니다. 저는 이번엔 떠나면 아마 돌아오기는 줄연 짚을 것 같애요.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최씨: (질색해서) 이애야, 그게 무슨 소리냐? 차라리 법소에 가서 자 현을 하고 몇 해 고생을 하고 말지 가기는 어데를 간단 말이나.
 영수: 아니에요. 어머니는 다 모르십니다. (서씨더러) 고생스럽더라도 어머니 모시고 상인이 데리고 조심해서 지내요.
 서씨:
 최씨: 글썽 어떡하자고 이러느냐? 내야 다 늙어서 죽을 날을 날 받아 놓다시피 했으니 죽으면 그만이지만, (서씨를 돌아보고) 이 젊으나 젊은 것이 어린 자식을 데리고 어찌 살아가란 말이나?
 영수: 그런 일 저런 일을 다 생각하다가 품 짝 못하겠어요? (사이) 혹시 형편이 여의하면 오시라고 기별할 테니 저것들 데리고 오세요.
 최씨: 가는 데가 어데길래? / 영수: 상해예요.
 최씨: 상해가 어데냐? / 영수: 청국이에요.
 최씨: (필쩍 된다.) 뭐? 청국? 저—대국 말이지?
 영수: 네, 무얼 그러세요? 옛날과는 달라서 이틀이면 오고 가고 한답니다. (시계를 꺼내 본다.) 시간이 썩 촉박하군. 자—어머니. 그럼 가서 편지로 자세한 말씀 드리지요. (서씨더러) 잘 있수.
 영수, 허둥지둥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고, 최씨와 서씨 뒤미처 눈물을 씻으면서 부엌으로 들어간다.

- 채만식, 「제향날」 -

* 자현: 자기 스스로 범죄 사실을 관아에 고백하던 일. 자수

44. 윗글을 공연으로 준비하기 위한 지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면이 시작할 때 최씨의 소품으로 송편 속을 준비한다.
- ② 순사는 칼을 찬 제복을 준비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갖춘다.
- ③ 영수는 낡은 옷을 입고 등장하여 고난의 상황임을 나타낸다.
- ④ 서씨가 최씨와 대화할 때 아이의 소리를 효과음으로 삽입한다.
- ⑤ 서씨가 석유 램프를 켜서 나오는 장면에서 효과를 살리기 위해 조명을 조정한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희곡에서는 인물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위 요소를 분석한다. 행위 요소는 인물과 인물이 갈망하는 목표, 목표를 위한 방법, 그러한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사건, 그리고 인물을 돕는 조력자와 인물을 방해하는 방해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영수가 갈망하는 목표는 일제 강점기 조국의 독립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영수가 청국으로 떠나려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최씨와 서씨는 영수가 바라던 갈망을 이루는 것을 돕고 있으니 조력자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오십 마지기의 눈을 처분하게 된 것은 영수의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라 볼 수 있겠군.
- ⑤ 영수를 잡기 위해 집을 드나드는 순사는 영수에 대한 방해자로 볼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